



### 삼위일체 하느님과 자연세계 (3)

자연세계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적 본성에서 흘러나오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에 대한 성찰은 “친교”(communio)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피조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의 관점에서는 서로 연결된 모든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친교’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자연”과 “창조” 간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이해하는 “창조”에 ‘친교’의 의미가 이미 녹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연은 인간이 분석, 이해, 통제하는 체제로 여겨지는 반면에, 창조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함께 보편적 친교(universal communion)를 이루도록 요청하는 사랑으로 비추어진 실재로 [이해됩니다.]”(76항). 이와 비슷하게, 회칙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룹니다.]”(89항)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역시 자연세계 그리고 다른 동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므로, 그러한 보편적 친교에서 예

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모상성”은 ‘관계’와 ‘친교’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관계적이며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물과 맺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친밀한 일치와 친교를 드러내도록 불림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적 관계와, 인간이 자연세계 그리고 피조물과 갖는 관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게는 ‘완전한’ 사랑과 친교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인간에게는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면서 친교를 해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룬다면, 그것은 보편적 친교를 이루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끊임없는 친교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에 반해, 현재 인류가 자연과 갖는 관계,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모습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에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더라도 절제의 자세를 갖고 동시에 그것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에 투신한다면 지구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다른 동식물,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모든 피조물은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보편 가정,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